

같이 보기

: 미디어 속 직업병

온갖 아름다운 꽃들로 둘러싸이는 아름다운 풍경은 봄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알레르기 때문에 바깥 외출마저 삼가야 할 정도로 몸이 괴로운 계절이 바로 봄이다.

글 편집실

작은 꽃가루가 불러오는 큰 괴로움 '꽃가루 알레르기'

영화 <시크릿 가든(2020)>



숨겨진 정원을 통해 치유되는 이야기

제목부터 익숙한 영화 <시크릿 가든>은 1911년 출간 되어 11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아온 클래식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다. 프랜시스 버넷의 『소공녀』, 『소공자』, 『비밀의 화원』으로 이어지는 3부작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동화가 원작으로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영화화되었다.

부유한 부모님과 함께 인도에서 살던 소녀 메리 레녹스(딕시 에저릭스)는 부모님이 콜레라로 죽자 이모부 아치 볼드 클레이븐(콜린 퍼스)경이 살고 있는 영국의 미술스와이트로 오게 된다. 부유하고 거대한 대저택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분위기가 어두운 이곳은 사람들마저도 우울하거나 아프다. 저택 주변을 맴돌며 지내던 메리는 떠돌이 개 ‘제마이마’, 이모부의 아들이자 사촌인 ‘콜린’, 동네 소년 ‘디콘’을 만나고 이들과 함께 숨겨진 정원을 발견하게 된다. 어두운 분위기의 저택과는 달리 놀랍도록 아름답고 환상적인 정원을 통해 하나 둘씩 마법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이라도 들어가기 전에 꼭 알아보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꽃가루가 일으키는 알레르기다. 꽃가루는 기침 같은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심하면 피부염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세한 꽃가루가 불러오는 커다란 괴로움

꽃가루 알레르기는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이 꽃가루를 코나 기도 등을 통해 들이마실 때 발생하는 알레르기성 호흡기 질환이다. 때문에 흔히들 꽃가루 알레르기의 주원인으로 봄에 피는 일반적인 꽃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꽃가루 알레르기의 주된 원인은 누런 먼지처럼 공중에 날아다니는 삼나무, 오리나무, 자작나무 등의 꽃가루로 알려져 있고, 이 꽃가루는 5월에 많이 발생한다. 이 꽃가루는 너무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고 많이 날릴 때만 먼지처럼 보인다. 4월 말~5월 사이에 핸드폰처럼 어두운 색의 물건을 몇 분만 바깥에 두어도 표면에 누런색의 뽀얀 먼지들이 앉는 것을 볼 수 있다. 바로 이 누런색의 먼지들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꽃가루의 일종이다. 또한 이외에도 외래종인 돼지풀도 알레르기를 일으키며 국화, 과꽃, 데이지, 야생 꽃꽃, 야생 국화 등은 피부염을 유발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 피부염, 기관지 천식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이 생기면 물 같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연속적으로 재채기하며, 양쪽 콧구멍이 번갈아 막힌다. 결막염이 생기면 눈이 심하게 가려워져서 비비게 되고 심한 경우 충혈되거나 눈곱이 끼기도 한다. 피부염이 생기면 공기 중 꽃가루가 노출된 눈 주위, 얼굴, 목, 손, 팔 등과 같은 부위가 빨갱게 변하고 가려워지며 전신에 두드러기가 일어나거나 원래 가지고 있던 피부염이 악화되기도 한다. 천식은 알레르기 염증 반응으로 기도가 좁아져 기침이나 쉼쉼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심할 경우 호흡곤란이 동반된다. 꽃가루 알레르기는 기상 조건에도 영향을 받는데, 따뜻하고 건조한 오전 시간이 꽃가루 농도가 가장 높다. 또한 비바람을 동반한 천둥이 친 후에도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



꽃가루 알레르기 예방하기

- 알레르기 검사로 원인물질과 악화 요인 파악
- 처방받은 약물 규칙적 복용
- 재발과 합병증을 막기 위한 꾸준한 치료 병행
- 먼지, 온도의 변화, 담배 연기나 매연, 화장품, 스트레스 피하기
- 주변 청결하게 하기
- 꽃가루가 많은 계절에는 실내는 창문을 닫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하기